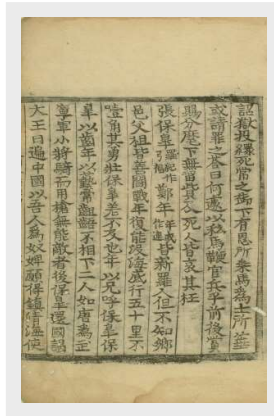


# 흑치상지[黑齒常之] 백제부흥군의 장수에서 당의 무장 (武將)으로

미상 ~ 689년(신문왕 9)



삼국사기 흑치상지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 1 개요

흑치상지(黑齒常之)는 백제 말의 귀족이자 부흥운동을 주도한 장수이다. 백제가 멸망하자 나당 연합군에 항복했다가 도망쳐 백제부흥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당에 항복하여 자신의 근거지였던 임존성(任存城)을 함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부흥운동을 종식시켰다. 이후 당으로 들어가 여러 정벌에 참여해 공을 세웠다.

## 2 흑치(黑齒) 가문의 성립과 흑치상지의 성장과정

흑치상지의 성은 흑치, 이름은 상지(常之), 자(字)는 항원(恒元)이다. 630년(무왕 31) 백제의 서부(西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차(沙次), 조부는 덕현(德顯), 증조부는 문대(文大)이다. 어머니와 부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당의 무장(武將)인 흑치준(黑齒俊)이 그의 장남이다. 흑치상지는 689년 9월, 조희절(趙懷節)과 반란을 도모했다는 주흥(周興)의 무고로 감옥에 갇혔다가 10월에 사망했다.

흑치상지의 조상은 백제의 왕성인 부여씨(扶餘氏)였으나, 흑치 지방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것을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흑치 가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흑치를 말 그대로 '검은 이'로 이해해서 필리핀 지방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흑치상지가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예산 지역의 옛 지명을 근거로 이곳이 흑치라고 주장하며, 여기에서 나아가 백제의 지방통치제도인 담로제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흑치' 가문의 성립은 흑치상지 출생 이전이 된다. 그런가하면 흑치상지가 당에서 활약하며 분봉을 받은 후, 백제식 성을 버리고 당시 변방을 의미하는 말인 흑치를 성으로 취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흑치' 가문은 흑치상지가 당으로 간 이후 성립된 셈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정확한 설명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흑치상지의 집안이 원래 왕족이었고, 대를 이어서 달솔(達率)을 역임할 정도로 유력한 귀족가문이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흑치상지의 증조부와 조부, 아버지까지 3대가 모두 달솔을 역임했고, 흑치상지 역시 20살이 되기 전 젊은 나이에 달솔에 올랐기 때문이다. [관련자료](#)